국토교통부	보도자료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
	배포일시	2018. 1. 2.(화)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국토지리정보원 국토측량과	담 당 자	• 과장 강인구, 사무관 이원국, 주무관 김현호 • ☎ (031)210-2640, 2656
보 도 일 시	2018년 1월 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"공공측량, 새로운 위성측량기술로 더욱 편리해집니다"

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…사용자 수 무제한·대기시간 1/10 수준

□ 국토교통부는 **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(GNSS)*을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**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**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(FKP)방식을 제도화**한다.

* 범지구 위성항법 시스템(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)은 위성항법신호와 신호전달시간을 바탕으로 대상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으로 위성의 종류는 지피에스(GPS, 미국), 글로나스(GLONASS, 러시아), 갈릴레오(Galileo, 유럽연합), 베이더우(Beiduou, 중국) 등이 있다.

○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(ICT)과 사물인터넷(IoT) 등으로 위치정보 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,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에서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한 기술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.

□ **국토지리정보원은** 지속적으로 **증가하는 정밀 위치정보 수요에 대비**하고 **위치기반서비스(LBS) 분야에서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기술의 활성화**를 위해, 기존의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(VRS)*만 허용하던 공공측량 분야에 **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(FKP)*을 사용할 수 있도록** 올해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.

* 가상 기준점 방식·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송출시스템 방식은 위성측량 기법 중 하나로, 보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전달하여 사용자가 cm수준의 정확도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

○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(FKP)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1,200여 명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/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.

□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에 배치된 국가기준점(통합기준점) 중 일부를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하여 **면보정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제공 서비스**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, 오차 범위가 평균적으로 수평방향 5cm 이내, 수직방향 10cm 이내의 수준으로 확인하였다.

○ 이는 공공측량뿐만 아니라, 항공사진측량·항공레이저측량 등 기본측량과 지적확정측량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, 해당 기술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**관련 규정의 추가 개정을 검토할** 예정이다.

□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“앞으로도 위성항법 서비스가 자율주행차, 드론, 사물인터넷, 차량관제, 실내항법 등 **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융합·활용**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.”라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측량과 이원국 사무관 또는 김현호 주무관(☎ 031-210-2640, 265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